



제1회 순창군 삼진강캠핑페스티벌이 30개팀 모집에 300여팀이 넘게 신청하는 등 전국적 관심을 끌며 캠핑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삼진강, 캠핑 중심지로

순창 삼진강 캠핑페스티벌 신청팀 300개 넘어

제1회 순창군 삼진강캠핑페스티벌이 30개팀 모집에 300여팀이 넘게 신청하는 등 전국적 관심을 끌며 캠핑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삼진강캠핑페스티벌은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향가오토크캠핑장과 강천산, 고추장민속마을을 연계해 추진하는 행사로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기면서 지역의 자연·생태체험은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알 수 있도록 꾸며진다.

총 30개팀 100여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군이 추진하는 첫번째 캠핑 페스티벌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향가오토크캠핑장 주변은 물론 강천산, 고추장민속마을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의 관광지와 특산물 등도 홍보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300여팀 중 시연과 신청일자를 고려해 30팀을 선정하고 통보했다.

1일차 행사는 향가오토크캠핑장, 향가터널, 향가목교 주변에서 진행된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만드는 요리왕 경연대회, 야간생태체험, 삼진강 별빛 트레킹 외에도 버스킹팀 초청 제즈, 가요, 동요, 공연도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파노라마 LED 설치로 야간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향가목교와 향가터널에서 진행되는 갈라매주파티도 캠핑 페스티벌의 재미를 더할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2일차 행사에서는 아침 요리왕 시상식과 본격적 지역의 관

광지와 연계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을 찾아 강천산의 역사 생태계 등을 설명 듣고 각자 강천산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오는 7가지 보물찾기 행사와 순창의 독보적 특산품인 고추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고추장 민속마을과 발효 소스토글 방문 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삼진강 캠핑 페스티벌은 순창을 전국적 캠핑명소로 발돋움 시키기 위한 행사"라며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캠핑페스티벌에 참여한 가족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인계면 체육관 준공

순창군 인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계면 체육관이 본격 완공돼 주민들이 4계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 기반이 완성됐다.

군은 인계면 870-3번지에 부지면적 2,285㎡, 지상 1층 연면적 499㎡ 배드민턴 3면에 배구·족구장 겸용 구장을 갖춘 실내체육관을 완공하고 지난 달 30일 준공식을 가졌다. 올해 2월 착공해 완공까지 총 11억원의 예산이 투자됐다.

이번 체육관 완공은 순창군이 지난 1월 북촌면체육관을 준공해 운영한 뒤 본격적인 면단위 체육환경기반을 확대하는 신호탄이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통해 면지역 체육기반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황숙주 군수, 김중섭 군의회 의장, 정성근 의원, 전계수

의원 등 군의원과 최영일 도의원 등 초청인사와 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체육관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공식행사와 테이프커팅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황숙주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인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관이 본격적 운영에 들어가기에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비가 올때나 눈이 올때도 주민들이 탁구, 배드민턴, 배구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된 만큼 많이 이용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계면에는 지난해 작은목욕탕이 완공돼 운영되고 올해는 체육관이 준공됐으며 심초마을 생활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등 생활환경개선 지수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경찰, 범죄예방교실 실시

고창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고창고등학교를 찾아 역사관에서 학생 3학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했다.

이날은 학교전담경찰관이 고창고등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및 고3 수험생이 수능 후 연말연시 분위기에 취해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음주 및 흡연 등의 탈선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범죄예방 교육을 했다.

특히, 청소년 음주 및 무면허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위반 예방교육, 폭력행위 등 청소년의 비행 탈선행위 예방 교육, 신분증 위·변조 및 타인 신분증 사용에 대한 범죄행위 등에 대해 강조했다.

고창고등학교 3학년 박모(18) 군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수능 후 학교를 찾아 동급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교실이 큰 효과가 있었다"며 "수능 후 뿐만 아닌, 언중으로 경찰에서 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농협,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임직원 및 부녀회장은 최근 남원농협 본점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남원농협 임직원과 부녀회장단 200여명은 3일과 4일 배추 1천5백포기를 담가, 영농회비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286가정에게 김장김치 10kg씩을 지원했다.

김장김치에 들어간 채소 일체를 남원농협 관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을 사용해 사랑의 나눔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박기열 조합장은 "남원농협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하여 매년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및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김장김치를 담가 나눠줬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임실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시설물 및 분묘 피해를 줄이고 주민 위해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

그동안 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했으나,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에도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게 됐다.

내달부터 오는 2017년 2월까지 운영되는 피해방지단은 관내 모뎀 수렵인 24명을 선발해 3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되며, 피해 농가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640-2351)로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해 포획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수렵장' 및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교통복지 1번지로 '급부상'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등

임실군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선진화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 '교통복지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1일부터 버스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관내는 물론 인근 전주까지 단 1천원의 요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및 3급 이상 장애인에 대상으로 월 12회 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복지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돕는 통학택시를 운영해 교통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통 오지마을인 운암면 일원을 중심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에서 소외됐던 월면, 지천, 범어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교통주권 실현은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복지제도"라며,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2017년부터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중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2천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국무총리상 특별교부세 2억 확보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실시 저출산 극복 위한 종합대책 수립

남원시는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제1회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현재 1.205명으로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초저출산국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년동안 저출산의 늪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으나, 남원시의 합계출산율은 1.473명으로 전국 평균과 전북 평균 1.329명 보

다 높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남원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 창출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이뤄낸 성과이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시민과 공무원 대상 출산관련 사전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하고,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원화 되어있는 출산과 양육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출산친화적인 인식개선

을 위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사전을 공모하여 전시하고, 다산상장하는 흥부제 행사일환으로 유모차 타고 행진! 행사를 신설, 운영하여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없애고 행복지수를 올리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남원시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내 시군 최초 다자녀 출산공무원에게 승진가점 부여와 모든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신기술보급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전국 우수상

콩 우량종자보급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한 '신기술보급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기술보급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는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신기술을 농업인에게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신기술의 농업현장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전북농업기술원 신기술보급 평가회에서 열렸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4년 농촌진흥청 '국산콩 수량격차 해소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사업을 충실히 추진했고 대농민 지도사례와 추진성과

그리고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 등에서 타 지자체보다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30개 시·군 시범사업 추진 우수사례에 응모했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9개 시·군에 고창군이 선정돼 2차 PPT 발표심사 평가를 거쳐 신기술보급 평가회에서 최종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부상으로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수상이 확정된 사업은 매년 발간되는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사업 우수사례집 수록과 화관 등 성과물로 전시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산콩 수량격차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계화가 가능한 콩 우량종

자 보급과 생력화 재배기술을 투입해 생산비를 30%까지 대폭 절감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신기술 실천으로 42%의 수량증대 효과를 거두고 콩 이용 가공제품(된장, 간장, 청국장, 청국장원)생산 다양화를 통해 단순히 원료곡 유통시보다 4~11배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을 높여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생산비와 경영비를 줄이면서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고 땅콩 시범사업을 추진해 땅콩 재배농가들의 소득증대와 고창땅콩의 명품브랜드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고3을 위한 힐링 콘서트 성황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수능을 끝낸 고3 학생들의 활력 충진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서영주)가 주관한 '제3회 고3을 위한 힐링~콘서트'가 지난 달 30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란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특강, 장기 자랑이 마련돼 올해 수능을 마친 지역 내 600여 청소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힘찬 미래로의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 해리중학교 '해풍'의 사물놀이 공연으로 문을 열었고, 팟캐스트 '불금쇼'의 진행자 최옥씨가 성년을 앞둔 청소년들을 위해 '양성평등과 건강하고 활기찬 연애'란 주제

의 특강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비버리시스트 초청공연이 펼쳐졌고, '광(光)끼 자랑'이란 주제로 참여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펼치는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으며, 광주지역 합합댄스팀과 박진숙 댄스 아카데미팀 '블랙스완'의 멋진 공연이 대미를 장식했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트리아트' 포드 존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플라로이드 카메라 등으로 기념 촬영을 하며 학창시절의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

정우(고창여고 3년)학생은 "학창시절의 마지막이라는 게 아쉽고 설거지 안 하지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공연을 즐겼더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다 풀린 느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특별형사활동 강화 논의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지난달 29일 2층 회의실에서 수사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40일간 연말연시 민생치안 강화를 위하여 특별형사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연말연시의 각종 범죄에 선제적 대응, 범죄분위를 사전 제압하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기간을 설정, 고질적인 기초치안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는 강·절도, 폭력사범 등에 대해 꾸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는 이른바 '동네 소폭의 불법 행위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기관·금융방·편의점 등 다액취급업소 대상 강·절도 절도 수포를 유발하는 직업적·상습적 장물범, 지역 상인을 상대로 한 상습적 갈취와 집단 폭행·협박, 시위나·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과시 조직성폭력배, 각종 이권에 개입해 치안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순창=이양원 기자